

애덤 스미스가 바라는 경제질서

“인생의 최후의 순간이 되어 그의 육체가 고통과 질병으로 쇠약해지고, 자신의 적들의 불의, 동지들의 배신과 망은 때문에 그가 받아 왔다고 상상하는 수많은 침해와 실망의 기억에 의해 그의 마음이 쓰리고 괴로울 때가 되어서야 비로소 그는 그러한 부와 권세가 사소한 효용을 가진 값싼 장신구에 불과하며, ... 부와 권세는 ... 그것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줄 수 있는 편리함 이상으로 번거로움을 더 많이 준다는 것을 알기 깨닫기 시작한다.(도덕감정론, 제4부, 1장)”

“부와 권세는 거대한 건조물과 같다. 그것을 건축하려면 평생 동안의 노동이 필요하다. 그러나 그것은 매순간 그 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파묻어 버리겠다고 위협한다.” (도덕감정론, 제4부, 1장)

“인류 사회의 각계각층에서 모든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경쟁심은 어디에서 생기는 것인가? 그리고 소위 자신의 지위의 개선이라고 하는 인생의 거대한 목적을 추구하는 것은 어떤 이익이 있어서인가? 남들로부터 관찰되고 주의와 주목을 받는다는 것, 그리고 그들로부터 공감, 호의, 그리고 시인을 받는다는 것이 바로 그것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이익이다. 우리의 관심을 끄는 것은 안락이나 즐거움이 아니라 허영이다. 그러나 허영이란 항상 자신이 주위로부터 주목을 받고 시인의 대상이 되고 있다는 신념에 기초한다” (1부 3편 2장).

I. 그의 출생 및 이력

II. 『국부론』은 어떠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는가?

- 1) 도덕과 경제학
- 2) “보이지 않는 손”
- 3) 개인과 국가는 사회를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가?

I. 애덤 스미스: 그의 출생과 이력

◇ 도덕철학자 애덤 스미스(Adam Smith, 1723~1790)는 스코틀랜드 커콜디Kirkcaldy에서 출생.

◇ 스코틀랜드 커콜디 항구는 탄광산업과 철강산업의 발달로 석탄 수출과 고철 수입이 활발했던 지방의 무역 중심지

◇ 어머니 마가렛 더글라스는 1723년 1월 남편이 사망할 당시 아이를 임신 중, 그의 아버지는 변호사이자 세무 공무원

◇ 스미스는 평생을 독신으로 지냄

◇ 스미스는 14세가 되던 해인 1737년에 글래스고대학에 입학, 그 나이에 대학에 입학하는 것은 오늘날의 기준으로 볼 때에는 의아한 일이지만, 당시로서는 지극히 일반적이었다.

◇ 스미스는 당시 유명한 도덕철학자였던 프란시스 허치슨(Francis Hutcheson, 1694~1746)—그는 자유지상주의자, 합리주의자 그리고 공리주의자—에게서 도덕철학을 배움

◇ 글래스고대학을 졸업 후, 1740년부터 1746년까지 옥스퍼드대학 벨리올Balliol 칼리지에서 장학금을 받아 공부했고, 그 기간이 만료되기 전인 1746년에 다시 커콜디로 귀환

◇ 카메스Kames경—당시 유력한 법률가이자 사상가—은 스미스에게 에든버러대학에서 영문학과 법철학에 대한 시리즈 강의를 요청

◇ 27세가 되던 해인 1751년, 스미스는 논리학, 도덕철학, 문학 그리고 수사학 등을 가르치기 위해 다시 글래스고대학으로 돌아옴. 첫째에는 논리학 교수로, 이듬해에는 해치슨 교수의 후임으로 도덕철학 교수로 재임

◇ 그의 철학 강의는 신학, 윤리학, 법학 그리고 공공정책 등으로 구성.

◇ 법학과 정책에 대한 강의는 가격체계의 작동, 보호무역주의의 결점 그리고 정부제도와 경제제도의 발전 등과 같은 이념들을 포함. 이 강의가 1776년 『국부론 *An Inquiry into the Nature and Causes of the Wealth of Nations*』으로 발간.

◇ 그러나 애초에 스미스를 유명하게 만든 것은 윤리학에 대한 그의 성찰, 이 내용은 1759년 『도덕감정론 *The Theory of Moral Sentiments*』이라는 제목으로 출간한다(『국부론』보다 17년 앞선다), 이 책은 인간의 도덕감정들, 도덕적 행위, 그리고 도덕적 판단들에 대해 설명

◇ 철학자 데이비드 흄David Hume은 이 책을 자신의 지인들에게 권함, 명망 높은 정치가였던 찰스 타운센드Charles Townshend도 이 책에 깊은 감명을 받고, 당시로서는 평생 지불해야 할 후한 급료로 스미스를 자신의 의붓 아들인 젊은 버클루Buccleuch 공작의 가정교사로 고용.

◇ 1764년 스미스는 교수직을 사직, 청년 공작 버클루와 함께 프랑스와 스위스 등지를 여행, 이때 그는 볼테르와 케네, 튀르고 등과 친분을 쌓음, 특히 케네로부터 경제학적인 영향을 받음

◇ 귀국 후 그는 커콜디에서 『국부론』 집필, 1776년에 발간

◇ 1784년 어머니가 사망할 때까지 결혼하지 않고 독신으로 그녀와 함께 생활, 1790년 67세의 나이로 생을 마감

◇ 1763년 글래스고대학에서 강의한 내용이 『글래스고대학 강의 *Lectures on Justice, Police,*

Revenue and Arms』란 제목으로 1798년에 출간--> 이 책은 당시 학생들의 필기장을 근거로 편집, 이를 통해 당시 그의 강의가 도덕철학 강의인 동시에 법학과 경제학 분야에까지 걸쳐 있음

◇ 정치경제학의 관점에서 맑스Karl Marx는 영국의 애덤 스미스에서부터 데이비드 리카도(David Ricardo, 1772~1823)에 이르는 시기를 통속적인 경제학과 구분해 ‘고전정치경제학’의 시기로 규정--> 맑스의 정치경제학 비판은 사실상 애덤 스미스의 『국부론』에 대한 비판에서 출발 --> 『국부론』은 경제학을 처음으로 이론·역사·정책에 도입해 체계적인 과학으로 발전시키는 데 기여.

◇ 애덤 스미스의 중상주의 비판은 영국의 자유무역정책으로 구체화--> 그는 중상주의 비판을 통해, 부는 금이나 은만이 아닌 모든 생산물이라고 규정,

◇ 또한 중농주의의 노동에 대한 구분, 즉 생산적 노동과 비생산적 노동 개념을 새롭게 재구성 --> 인간의 노동이 가치 창출의 토대, 분업이 국부 증대의 핵심적인 원천

◇ 애덤 스미스는 자기 생의 대부분을 스코틀랜드에서 보냄--> 당시 스코틀랜드는 지적 활동이 왕성, ‘스코틀랜드 계몽주의(자)’라는 용어는 이러한 시대적 분위기 속에서 탄생

◇ 스코틀랜드는 1707년 영국에 통합돼 정치적 독립성을 상실, 스미스가 활동할 당시에는 스코틀랜드의 정체성을 부활시키려는 움직임이 여러 지적 세계 안에서 발생.

◇ 이러한 맥락에서 스코틀랜드 계몽주의자들은 1) ‘자유와 정의의 질서에서 한 사회를 번영시키는 인간 본성이란 무엇인가?’ 2) ‘문명의 발전과 더불어 사회는 어떻게 변화하는가?’라는 인간과 사회에 관한 도덕철학적 문제를 탐구 --> 이러한 도덕철학의 문제는 당시 스코틀랜드의 정치적·경제적 상황의 변화로부터 등장.

◇ 이때 도덕철학의 문제 속에 핵심적으로 자리 잡고 있던 관념은 ‘진보improvement’ --> ‘진보의 관념’은 상업사회에 대한 국가 간섭의 부재 혹은 시민사회의 자율성의 증대를 의미

◇ 스코틀랜드가 영국에 통합될 수 있었던 원인 가운데 하나는 스코틀랜드인들이 제한받지 않고 영국시장으로의 진입 가능성 --> 18세기의 영국과 그 일부인 스코틀랜드는 이미 ‘상업사회’로 진입 --> 스코틀랜드 계몽주의자들은 새로운 사회의 도래를 위한 필요한 질서에 관해 논의

◇ 스미스의 스승인 허치슨은 사회질서가 인간에게 공통적으로 존재하는 ‘도덕감각moral sense’에 의해 인도 --> 하지만 스미스는 『도덕감정론』에서 허치슨의 주장에 대해 반론을 제기, 다른 도덕철학 체계를 주장

◇ 18세기 영국은 정치 민주화, 경제 및 기술의 발전, 지식의 발달과 보급이라는 문명사회의 유익한 측면과 빈곤, 전쟁 등의 어두운 그림자가 동시에 존재--> 이러한 시대적 상황 속에서 스미스는 다음의 질문을 던진다. ‘사회질서와 번영의 일반적 원리는 어디에 있는가?’ 그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인간 본성의 고찰에서 찾고자 시도한다. 첫 번째 답변으

로 등장한 것이 바로 『도덕감정론』이며, 이 답변을 기초로 제시한 답변이 『국부론』이다.

II. 『국부론』은 어떠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는가?

1) 도덕과 경제학

◎ 스미스 시대의 철학자들: 인간의 행동을 옳거나 나쁘게 만드는 것이 무엇인지에 관해 합리적 설명을 추구, 하지만 스미스에게 인간의 도덕성은 계산되는 것이 아님 --> 도덕성은 *중립적인 것으로 인간을 사회적 존재로 만드는 계기로 작용.*

◎ 예를 들면, 스미스에게 ‘공감’ (sympathy)은 직접적이고, 진심에서 우러난 것으로 중립적인 감정 --> 상상함으로써 인간은 자신을 타인의 위치에서 이해.

◎ 스미스는 인간의 모든 동기가 단지 자기애 혹은 이기심의 원칙으로 환원될 수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음 --> 인간들이 이기적인 경제적 교환에 관여할 때조차도 이들은 *단지 자신들의 이기심이라는 동기에 의존하지 않는 일련의 상호관계에 관여.*

◎ 스미스의 자기애나 자기 이익 self-interest 개념 --> 이 개념들은 타인들을 나쁘게 만들면서 이익을 얻고자 하는 그러한 불유쾌한 것이 아니라 신중함과 연관성 속에서 자신의 복지를 추구하고자 하는 전적으로 적당하고 적절한 관심사 -->

◎ 이 개념들은 자기보존을 위한 충동이며, 이는 “인간 본성의 가장 중요한 원리의 하나”인 “죽음에 대한 공포”와 연결.

◎ 자기보존은 *인간본성으로서 미덕도 악덕도 아님* --> 자기보존의 욕구는 *생존의 욕구* --> 생존의 욕구는 *경제적 활동이라는 사회적 관계를 형성* --> 생존과 자기보존을 위한 자연적 욕구 간의 결합으로 인해 경제활동은 self-interest의 원칙, 혹은 ‘개선’을 위한 욕구를 이 활동의 주요한 동기로 수용.

◎ 이러한 맥락에서 상업사회의 경제활동에 관한 분석이 곧 *스미스 도덕철학에 관한 강의록의 한 부분인 정치경제학.*

◎ 자기보존을 위한 욕구와 자신의 이익에 대한 관심으로 인해 인간은 노동에 대한 동기부여 --> 자기개선을 위한 욕구-> 상업사회의 발전 동인.

◎ 상업사회는 거래의 중재를 형성하는 교환 --> “보이지 않는 손” --> ‘자기조절적’ 기제인 시장관계라는 사회적 관계가 등장 --> 매매와 구매라는 자유로운 거래행위 성립

◎ 스미스에 의하면 상업사회는 구속으로부터 자유로울 때, 즉 “인간이 만든 제도가 사물의 자연적 과정을 방해하지 않는다면”, 가장 잘 효율적으로 작동.

◎ 자유로운 거래에 기반한 상업사회, 혹은 ‘자연적 자유체계’는 곧 “국부 증진의 자연적 진행과정”을 의미.

◎ 하지만 ‘자연적 자유체계’인 상업사회가 사회의 모든 구성원들에게 물질적으로, 그리고 자유의 의미에서 이전의 시대보다 더 나은 삶을 제공

◎ 하지만 상업제도와 분업이 사회적 불평등을 초래 → 부가 확산되고 임금은 증대 하지만 불평등은 여전히 존재.

◎ 스미스에게 상업사회가 효율적으로 작동하고자 한다면, 불평등은 존재해야 함

◎ 이 불평등은 그에게 문제가 되지 않음 → 그 이유는 상업이 가난한 자를 부유하게 해 줌 → 여기서 ‘공감’이라는 도덕감정이 작용.

◆ 스미스의 경제이론은 사회적 결속에 대한 가정들에 기초 → 공감은 본질적으로 동료감정, 즉 타인에 대한 감정, 이기적 원칙으로 간주될 수 없음 → 스미스의 정치경제학은 항상 “공정한 관찰자” 개념을 포함 → ‘자연적 자유체제’의 암묵적 행위자인 “공정한 관찰자”가 없다고 한다면, 그의 정치경제학은 단지 이기심에 기반하여 자연계에서 말하는 적자생존의 법칙에만 의존함.

2) “보이지 않는 손”

□ 스미스는 인간들이 서로 살아가고 일하는 방법들을 찾기 위해 투쟁할 때 → 사회조화는 자연적으로 출현함

□ 자유와 이기심이 혼란을 초래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손’에 인도되어 질서와 화합을 만들어 냄 → 사회질서의 유지는 정치의 지속적인 기획을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라 유기적으로 인간본성의 산물로서 성장 → 인간사회의 견고한 토대는 인간의 도덕감정

□ 스미스는 『천문학사 *History of Astronomy*』에서 “주피터의 보이지 않는 손”이라는 개념을 처음 사용. “그들은(부자들은) 보이지 않는 손에 인도되어 토지가 모든 주민들에게 평등한 몫으로 분할되었을 경우에 행해졌을 것과 거의 동일한 생필품을 분배하게 된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의도하거나 알지 못하면서도 이렇게 사회의 이익을 증진시키고 종족의 증식의 수단을 제공하게 된다”.

□ 『국부론』에서 ‘보이지 않는 손’ 언급

“...각 개인은 필연적으로 사회의 연간 수입이 가능한 한 최대의 가치를 갖도록 노력하는 것이 된다. 사실 그는 일반적으로 말해서 공공의 이익을 증진시키려고 의도하지도 않고, 공공의 이익을 그가 얼마나 촉진하는지도 모른다. ... 노동생산물이 최대의 가치를 갖도록 그 노동을 이끈 것은 오로지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이다. 이 경우 그는 다른 많은 경우에서처럼 보이지 않는 손에 이끌려서 그가 전혀 의도하지 않았던 목적을 달성하게 된다.”

□ ‘보이지 않는 손’은 애덤 스미스를 지칭하는 일종의 상징적 문구로 회자

□ ‘보이지 않는 손’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일까? 이 손이 ‘명백하고 단순한 자연적 자유체제’를 의미하는 것이라면, 이 체계는 과연 어떠한 의미를 함축하고 있는 것일까?

□ 스미스의 ‘보이지 않는 손’ 개념은 ‘자생적 질서’ 관념에 적용되는 가장 유

명한 서술

□ 스미스는 『천문학사』에서 초기 사회의 인간은 외관상보기에 뿔뿔이 분산된 자연의 모습들을 함께 묶어 주는 사건들의 숨겨진 고리들을 발견해 내는데 별로 호기심을 가지지 않음 --> 미개한 초기사회에서 불규칙적인 사건들은 *의인화된 신의 간섭*이라는 의미에서, 즉 *종교적 의미에서 설명*.

□ 이러한 종교적 맥락에서 ‘주피터의 보이지 않는 손’은 *정상적인 자연과정 속에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기대된 과정과는 반대로 이루어지는 사건들을 설명하는 개념*

□ 『도덕감정론』과 『국부론』에서는 다른 의미 --> 이 두 저작들에서 ‘보이지 않는 손’은 *자연적 질서를 회복하는 의미를 함축*하는 반면, ‘주피터의 보이지 않는 손’은 *자연적 질서의 와해*를 언급.

□ 『도덕감정론』과 『국부론』에서 사용되는 ‘보이지 않는 손’ 개념은 ‘이익’ 혹은 ‘혜택’이라는 세속적인 차원에서 접목 --> ‘보이지 않는 손’은 *의도하지 않은 결과들의 중재를 통하여 유익한 결과들을 생산해내는 감지할 수 없는 장치* --> ‘하나의 은유’로서 “보이지 않는 손”은 각기 다른 동기를 부여받은 인간행동의 의도하지 않은 결과들의 조정의 결과로 유익한 자생적 질서를 만들어내는 장치.

□ 하지만 스미스의 ‘보이지 않는 손’ 관념에는 중요한 전제가 있음 --> 인간들이 행동할 때, *도덕적 적정성과 부적정성을 항상 염두에 두고 있다는 점*.

☆ ‘보이지 않는 손’ : 이기적 행위자들의 이기심과 탐욕에 대한 억제, 혹은 절제를 담지하고 있는 정치적, 사회적 행동의 조정양식 --> “보이지 않는 손”과 자생적 질서 개념 속에서는 ‘공감’과 ‘자기 억제’라는 인간의 도덕감정이 자리잡고 있음 --> 인간은 공감이라는 도덕감정을 가지고 있기에 타인과 소통하고 배려하고자 하는 감정을 가짐.

☆ 또한 만약 자기 억제라는 이 감정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보이지 않는 손은 자기조절적 기제로서의 역할을 다하지 못함 --> 그 결과 자생적 질서 관념도 사라짐. 자제라는 감정으로 인해 인간은 자신의 탐욕과 이기심을 억제.

스미스의 ‘보이지 않는 손’ 이념은 이러한 도덕감정을 기반으로 작동하는 질서

3) 개인과 국가는 사회를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가?

◆ 스미스의 “자연적 자유체계” -->

“...특혜를 주거나 제한을 가하는 모든 제도가 완전히 철폐되면 분명하고 단

순한 자연적 자유체계가 스스로 확립된다. 이 체계 하에서 모든 사람은 정의의 원칙을 위반하지 않는 한, 완전히 자유롭게 자신의 방식대로 자신의 이해관계를 추구한다. 또한 그들은 자신들의 근면과 자본을 바탕으로 누구와도 완전히 자유롭게 경쟁할 수 있다.” (국부론 제4편 9장)

- ◆ 이 개념은 자본주의체제에서 ‘시장’ 과 연결.
- ◆ 경제는 국가의 임의적이고 편파적인 간섭이 부재할 때, 가장 잘 작동 → 혹자는 경제에 대한 국가불간섭주의를 언급, 스미스의 국가론 → ‘최소정부’ 혹은 ‘최소국가’ → 국가는 “최소국가” 이 관점에서 “필요악” 으로서의 존재이유.
- ◆ 1990년 이후 신자유주의 neo-liberalism 의 강력한 등장 → 프리드리히 하이에크, 밀턴 프리드먼 등의 자유시장 경제학자와 로버트 노직과 같은 철학자가 발전시킨 고전정치경제학에 대한 최근의 해석.
- ◆ 신자유주의가 지니는 중심적 지축은 시장과 개인 → 국가의 영역을 최소화.
- ◆ 신자유주의 관점 → 국가는 ‘죽은 손’
- ◆ 스미스의 “자연적 자유체계” 인 국가는 국민의 복지를 소홀히 다루고 있는 자유방임론적 국가, 최소국가가 아님.

“우리가 그 안에서 태어나고 교육받았으며, 또한 그 보호를 받고 살아가는 주권국가는 가장 큰 사회로서 우리의 선행이나 악행은 일반적으로 이 사회의 행복과 불행에 많은 영향을 준다. 따라서 자연은 이 가장 큰 사회를 우리가 선행을 베풀어야 할 대상으로 아주 강력하게 권장한다. 우리 자신, 우리의 가장 친근한 애정의 대상들, 즉 우리 자손, 부모, 친족, 친구, 은인, 그리고 우리가 옹당 가장 사랑하고 존경하는 모든 사람들은 이 사회 안에 포함된다. 그리고 그들의 번영과 안전은 그 국가의 번영과 안전에 어느 정도 의존한다.”

“조국에 대한 사랑은 그 안에 일반적으로 두 개의 원리들을 포함한다. 첫째는 실제로 확립되어 있는 국가의 정체, 정부형태에 대한 일정한 존경과 경의이고, 둘째는 동료시민들의 사람의 조건을 가능한 한 안전하고 품위있게 하며 행복하게 하려는 진지한 바람이다. ... 또한 자신의 능력범위 내에서 가능한 모든 방법으로 동료시민으로 구성된 전체 사회의 복지를 증진시키기를 원하지 않는 사람은 확실히 좋은 시민이 아니다.”

- ◆ 사회나 ‘가장 큰 사회’ (국가)는 단지 개인들이 경쟁을 통해 자신들의 능력만을 발휘하는 그러한 장소가 아님.
- ◆ 사회나 국가란 무엇인가? → 개인들의 공감, 선행, 정의, 비사회적 열정, 사회적 열정 그

리고 이기적 열정 등의 도덕감정들이 행동의 적정성과 부적정성의 원리 속에서 복합적으로 상호작용하는 공동체.

- ◆ 로크가 정치권력의 자의적·임의적 행사에 대항해 『통치론』을 저술 → 스미스 또한 인간들의 자연스러운 도덕감정에 위배되는 비사회적·이기적 인간행동들을 비판, 공동체의 건전한 발전과 개인의 행복을 동시에 달성하고자 하는 의미에서 『국부론』을 저술.
- ◆ 스미스는 정치경제학을 “정치가나 입법자의 과학의 한 분야”로 정의.
- ◆ 정치경제학은 두 가지 목적들을 가짐 →

“첫째, 국민들에게 풍부한 수입이나 생필품들을 제공하는 것, 더 적절하게 표현하면 국민으로 하여금 스스로 충분한 수입 혹은 생필품들을 얻을 수 있도록 한다. 둘째,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충분한 수입을 국가에 제공한다. 즉, 정치경제학은 국민과 국가 모두를 부유하게 만드는 것을 계획한다.” (국부론, 제4편 정치경제학의 학설체계)

◆ 『국부론』은 18세기에 나타나는 시대적 상황 - 상업사회의 출현과 번성 - 에서 사회체제들의 분화로 인한 경제체제에 적정한 실천적 규범체제에 관한 소통담론 혹은 시민사회의 정당성을 논의 → 『국부론』은 봉건적 지배체제의 붕괴와 더불어 이제부터 존재하는 사회 발전의 4번째 단계인 ‘상업사회’, 즉 “자연적 자유체제” 속에서 상업과 ‘자유’ 간의 새로운 상호관계들의 도덕적·정치적 결과들을 연구.

◆ 『국부론』은 상업사회의 발전단계에 적절한 제도들을 통해 사회화된 인간들에 의해 초래된 사회경제적 결과들을 연구.

◆ 이러한 맥락에서 스미스는 『국부론』에서 ‘보이지 않는 손’인 시장과 ‘보이는 손’인 국가의 중요한 임무들을 지정.

◆ 스미스에게 국가의 부는 국가번영을 위한 충분조건이 아니며, 필요조건 → 사적 이해관계의 토대 위에서 일어나는 경제활동은 인간존재의 궁극적 목적이 아니다. 이 활동은 개화된 인간생활의 목적을 위해 필요한 수단. 부연하면, ‘자기 조절적 기제’인 시장, 즉 ‘보이지 않는 손’이 인간에게 최대의 행복을 가져다 주는 것은 결코 아니며, ‘보이는 손’인 국가가 ‘보이지 않는 손’을 제대로 기능하도록 하기 위해 이 ‘보이지 않는 손’을 돌보아 주어야 함.

◆ 국가는 시장행위의 전제조건인 까닭에 “법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적어도 효율적 의미에서 시장은 결코 존재하지 않을 것이다. 법은 시장의 작용, 대리자들의 경제활동들, 그리고 ‘보이지 않는 손’의 작용에 선행한다”.

◆ 스미스적 근대국가는 분업에 의해 “더 높은 인간적 성향들이 전반적으로 위축되고

저지된” 폭넓은 계층들을 돌 볼 의무를 가짐.

◆ 상업사회에서 분업이 초래하는 부정적 영향, 즉 노동하는 사람들의 정신적 황폐화현상.

“분업이 발전함에 따라 노동으로 생활하는 사람들의 거의 대부분의 직업은 아주 단순한 몇 가지의 직업들로 제한된다. 그런데 대다수 사람들의 이해력은 필연적으로 그들의 일상적 직업에 의해 형성된다. 자신의 일생을 몇 가지 단순한 직업에 바치는 사람들은 ... 예기치 못한 어려움을 제거할 방법을 찾기 위해 그의 이해력을 발휘하거나 그의 창조력을 행사할 기회를 가질 수 없다. 따라서 그는 자연스럽게 그러한 노력을 하는 습관을 상실하게 되고, 일반적으로 인간으로서 가장 둔해지고 무지해진다. 그들의 정신은 마비상태에 빠지고 어떤 합리적인 대화를 하거나 그런 대화에 참여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어떤 관대하고 고상하고 온화한 감정들을 느낄 수 없게 되며, 사생활에서의 수많은 일상적 의무들에 대해서도 정당한 판단을 내릴 수 없게 된다.

그는 조국의 중대하고 광범위한 이해관계들에 대해 전혀 판단할 수 없으며, 그가 그런 상태로 빠지지 않도록 국가가 특별하게 노력하지 않는다면, 그는 전쟁이 일어났을 경우에도 조국을 방어할 수 없게 된다.

그의 단조로운 생활로 인해 그는 자연적으로 자신의 정신적 용기도 상실한다... 또한 그의 단조롭고 정제된 생활은 그의 신체의 활동력을 부식시켜, 그때까지 그가 배워 온 직업 이외의 어떤 직업에서도 활기 있고 참을성 있게 자신의 능력을 발휘할 수 없게 만든다. ... 발전되고 문명화된 모든 사회들에서 노동민민, 즉 대다수의 국민들은, 정부에서 이를 방지하기 위해 노력하지 않는 한, 필연적으로 이런 상황에 빠지게 된다.”

◆ 이에 대한 처방제시

“발전한 상업사회에서는 어느 정도의 지위, 재산을 가진 사람들을 교육하기보다는 서민 교육에 더 많은 사회적 관심이 필요하다. 어느 정도의 지위, 재산을 가진 사람들은 대개 18-19세가 되면 그들이 출세하려는 특정 사업, 직업, 상업 등을 시작한다. 그때까지 그들에게는 사회에서 존경받을 만한 사람이 되게 하는 모든 교양들을 습득할 시간이나 적어도 그 뒤에 그런 교양을 습득할 준비를 하는 시간이 충분하다. 그들의 부모나 보호자들은 그들이 그런 교양을 습득하기를 아주 열망하고, 대개 이 목적에 필요한 비용을 지출하는데 전혀 주저하지 않는다. ...또한 어느 정도의 지위, 재산을 가진 사람들이 그 생애의 대부분을 바치는 직업은 서민의 직업처럼 간단하고 단조롭지 않다. 거의 모든 직업이 매우 복잡하며, 손보다는 머리를 사용한다. 이런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이해력이 머리를 사용하지 않아 둔해지는 경우는 별로 없다. 게다가 어느 정도의 지위, 재산을 가진 사람들의 직업은 일반적으로 그들을 아침부터 저녁까지 괴롭히지 않는다. 그들은 일반적으로

많은 여가를 가지며, 그 여가에 그들은 청년기에 기초를 닦았거나 어느 정도의 취미를 얻었던 유용하거나 과시용 지식들을 연마할 수 있다.

... 비록 어떤 문명사회에서도 서민들은 어느 정도의 지위, 재산을 가진 사람들만큼 충분히 잘 교육받을 수 없다고 하더라도 교육의 가장 필수적인 부분, 즉 일기, 쓰기, 셈하기는 아주 어린 나이에 배울 수 있기 때문에 최하급의 직업에 종사하게 될 사람들의 대부분도 그런 직업에 종사하기 전에 그것을 습득할 시간이 있다. 아주 적은 비용으로 국가는 거의 모든 국민에게 교육의 가장 필수적인 부분을 습득하는 것을 쉽게 하고, 장려할 수 있으며, 또한 의무로서 강제할 수 있다.”

◆ 교육을 통한 국민들의 교화, 혹은 계몽은 사회의 안정적인 질서유지, 발전, 그리고 통합을 위해 중요한 요소

“인간의 지적 능력을 적절히 사용하지 못하는 사람은 겁쟁보다 더욱 경멸할 만하며, 인간성의 더 본질적 부분에서 불구 혹은 기형이 되는 것 같다. 비록 국가가 하층민의 교육으로부터 어떤 이득을 전혀 얻지 못한다 하더라도 그들이 조금이라도 교육을 받게끔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그런데 국가는 그들을 교육시킴으로써 적지 않은 이득을 얻는다. 그들이 교육을 받으면 받을수록 무식한 국민들 사이에서 종종 가장 무서운 무질서를 낳는 광신, 미신에 덜 빠지게 된다. 게다가 교육받고 지식을 갖춘 사람들은 무지몽매한 사람들보다 항상 더욱 예절 바르고 질서를 잘 지킨다. 그들은 무지몽매한 사람들보다 더 큰 자존심을 가지며, 합법적인 상급자로부터 사랑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자신도 상급자를 더 존경하는 경향이 있다. 그들은 당파, 선동의 이기적 불평을 심사숙고하며, 그렇게 할 능력을 더 크게 가진다. 그리고 이런 이유로 그들은 정부 정책에 대해 방자하거나 불필요한 반항을 더 적게 가진다.

정부의 안전이 정부의 행동에 대한 국민들의 호의적인 판단에 아주 크게 의존하는 자유 국가에서는 국민들이 정부의 행동을 성급하거나 변덕스럽게 판단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확실히 가장 중요한 문제이다.”

◆ 스미스의 국가역할에 대한 이러한 생각은 인간들의 본성 속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도덕감정들 중에서 특히 정의라는 덕성을 사회의 기본적 토대로 간주했다는 점에서 비롯된다.

이 정의감정을 근거로 시장에서의 독점형성을 저지하고 소비자들에게 가장 좋은 공급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 근대국가는 자유시장의 법들을 보장해야만 한다. 스미스적 국가는 경제적 측면에서 많은 이점을 지니고 있는 분업이 사회적으로 끼치는 부정적 영향들을 감소시키면서 궁극적으로 자유, 평등, 정의를 구현하고자 하는 그런 국가이다. 즉, 그가 그렸던 국가의

모습 혹은 의무는 “완전한 자유와 정의의 자연적 체계” 속에서 무엇보다도 소외된 계층들의 지식과 계몽을 장려함에 있다. 스미스적 국가는 중상주의 경제정책에서 나타나는 특수집단의 이익을 대변하는 조직이 아니다. 스미스적 국가의 의무는 사회 전체계층의 일반적 이해관계를 대변함에 있다. 이러한 생각은 그의 중상주의에 대한 비판에서 분명하게 드러난다.

“단지 한 계층의 이익을 증진시키기 위해 다른 계층의 이익을 다소 침해하는 것은 모든 계층의 국민들에 대해 위정자가 행해야 할 의무인 정의와 대우의 평등을 명백하게 위반하는 것이다.”

◆ 스미스에게 정치경제학은 위정자와 입법자들을 위한 하나의 분야, 또한 국민과 국가 모두를 부유하게 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짐.

◆ 그는 상업사회 속에서 대두할 수 있는 탐욕과 독점을 이미 잘 인식.

“인류의 지배자들의 폭력과 부정은 오래된 악이며, 치유될 수 없는 것이라 생각된다. 그러나 인류의 지배자도 아니고, 또 지배자로 될 수도 없는 상인과 기업가들의 비열한 탐욕과 독점정신이 비록 교정될 수는 없다 할지라도 다른 사람들의 평온함을 교란하지 못하도록 저지하는 것은 아마도 쉬울 것이다.”

◆ “완전한 자유와 정의의 자연적 질서” 를 의미하는 국가의 공적 정신은 상인과 기업가의 도덕적 적정성을 넘어서는 탐욕스러운 행위가 타인의 자유와 행복을 침해한다면, 국가는 이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의무가 있음

◆ 스미스적 국가는 사회정책적 관점에서 정책조치들을 통해 경제적 법칙성을 무효화시키며, “선한 시민의 충절과 공공정신” 의 보상을 위한 행위주체

◆ 스미스는 자연적 자유체계에서 국가가 해야 할 임무 혹은 역할을 세 가지로 설정한다.

“자연적 자유체계 하에서 국왕은 오직 세 가지 의무에 유의해야 한다. 이 세 가지 의무는 매우 중요하지만 명백해서, 보통의 이해력을 가진 사람이라면 누구나 이해할 수 있다. 첫째, 사회를 다른 독립적 사회의 폭력이나 침략으로부터 보호하는 의무, 둘째, 사회의 각 구성원은 다른 구성원들의 불의와 억압으로부터 가능한 한 보호하는 의무, 셋째, 일정한 공공사업이나 공공시설을 건설하고 유지하는 의무이다. 그런데 이 공공사업과 공공시설을 건설하고 유지하는 일은 결코 어느 한 개인이나 소수 개인들의 이익에 적합할 수 없다. 왜냐하면, 그것의 이득은 사회 전체에 대해서는 그 비용을 보상하고도 남는 경우가 종종 있지만 어느 한 개인이나 소수 개인들에 대해서는 그 비용을 결코 보상할 수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 국가의 의무를 간단히 요약하면 이렇다. 첫째, 외국으로부터의 국가보호, 둘째, 법을 통해 사회 내에 존재하는 부정이나 억압으로부터 전체 사회구성원들의 보호, 셋째, 개별 시민들이 자신들의 이해관계를 이유로 행할 수 없는 공공시설물이나 설비들의 제공 등이다.

◆ 여기서 하나의 문제를 던져보자. 만약에 개인의 자유와 전체 사회의 안전보장이 서로 갈등을 일으킬 경우, 이 둘의 관계는 어떻게 되는가?

◆ 스미스는 전체사회의 안전보장과 공공의 복리증진을 위해 개인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다고 생각. 그에게 국가의 경제적 번영보다 국가안전이 더 중요하기 때문이다.

◆ 또한 스미스는 특수한 경제적 기능과 관련해 국가의 적극적 활동도 지정하고 있다. 예를 들면, 이자율 통제, 민간 은행가에 의한 소은행권 발행에 대한 통제, 계약이행에 대한 강요, 국내산업과 노동력을 보호하기 위한 무역자유화의 도입 연기, 직업교육에 대한 강제력 행사, 자본의 생산적 사용을 위한 과세 등이다.

★ 전체 사회구성원들과 계층들의 상호의존성에 대한 관념인 ‘보이지 않는 손’ 을 토대로 자연적 자유체계 속에서 특정한 계층의 경제적 이해관계와는 무관한 경제정책의 제도화를 스미스는 강조하고 있다.

★ 경제정책의 제도화는 국가가 사적인 상인집단이나 부유한 집단들의 이해관계의 봉사를 위해서가 아니라 낮은 사회계층들에 대한 더 나은 생활환경의 창출을 위해 봉사할 의무가 있다는 도덕감정들에 대한 인식에서 비롯된다. 국가활동은 각 개인들이 자신들의 이해관계를 추구할 수 있기 위한 조건들을 창출하고 유지함에 있다.

★ 그러나 도덕적 적정성의 범위를 초월하는 상인과 기업가들의 탐욕, 독점정신, 그리고 분업으로 인한 노동자들의 문화적·인간적·정신적 황폐화는 공평성의 원리에 기반한 상호 공정한 경쟁체계를 무의미한 것으로 만듦 --> 각 개인이 공평성의 원칙 하에서 자신의 사적 이익을 추구할 수 있는 전제조건들을 제공할 적극적 의무가 있는 국가간섭은 자연적 자유체계와 정의사회 실현을 위해 경제적으로, 도덕적으로 정당함